

장려상



다음은 없습니다

박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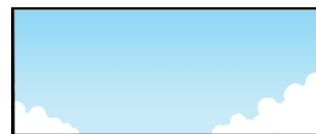
'다음'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실하게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상철이가 어느 날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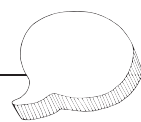
선배님과 대화는
나의 공직생활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럼 이번은 그냥
드시고 다음번에 사오면
그때는 돈을 주세요.

청렴에 다음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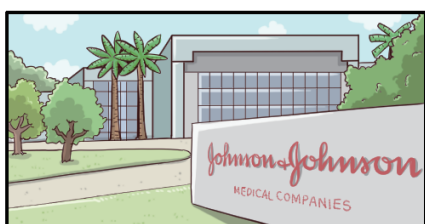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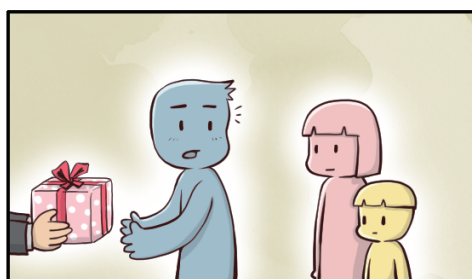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법률이나 어떤 지침으로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납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다보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존슨 앤드 존슨(Johnson & Johnson)은
정책결정 과정의 마지막에 독특한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빨간 얼굴 테스트'라 불리는 불문율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이 아내와 자식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존슨 앤드 존슨을 미국식 윤리경영의
표상 또는 윤리경영의 원조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청렴도가 개인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은 잊고 지내곤 합니다.

청렴은 무엇보다 소중한 사회적인 자산이며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몇 십 년에 걸쳐 이루어 온
청렴도 단 5분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격언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